

가을철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상황 점검

- 산업부 '24년 3차 「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」 회의 개최
- '24.3분기까지 모빌리티용 수소 소비량(6,389톤)은 전년 동기(4,016톤)대비 59% 증가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산업부)는 11.6.(수) 서울에서 '24년 제3차 「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*」 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, 지자체, 업계와 그간 추진실적과 4분기 수소 수급 전망을 공유하고, 수소 소비량 확대에 따른 수급 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.

* 안정적인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을 위해 발족('23.2월) (총괄)산업부, 유통전담기관, (수요)환경부, 국토부, 지자체, 충전사업자, 수소차 제조사, 버스운수업체 (공급)기체·액화수소 생산자, 수소유통사 등

동 회의에서 산업부는 올해 3분기까지 모빌리티용 수소 소비량은 작년 같은 기간(4,016톤)보다 59% 증가한 6,389톤이었으며, 수소차 보급목표와 수소 생산설비들의 생산능력 등을 감안하면 4분기 수요량은 최대 약 4,900톤, 공급량은 최대 6,500톤이 예상됨에 따라, 안정적인 수소 수급이 전망된다고 밝혔다.

또한, 환경부는 4분기 수소버스 등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계획을, 국토부는 수소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방안을, 지자체는 지역별 수소버스 및 충전소 보급계획과 수소 수급 관리 방안 등을 공유하였으며. 수소유통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예방적 수급관리의 일환으로 11월 중 수소 생산시설 및 중점 충전소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“수소버스 보급 등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수소제품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”고 언급하며, “수소버스 등 수소모빌리티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소 수급이 필수적인 만큼, 정부는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, 관계부처, 지자체,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”고 강조하였다.

담당 부서	수소경제정책관	책임자	과 장	김범수 (044-203-3950)
	수소경제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박경민 (044-203-3954)

참고

24년 제3차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 회의 개요

□ 추진 배경

- 모빌리티용 수소의 안정적 수급 및 수소차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정부·지자체·업계·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

□ 회의 개요

- 일시/장소 : 11.6(수) 10~11:30, 센터포인트 광화문 빌딩(지하 1층 A회의실)
- 참석대상 : 산업부, 환경부, 국토부, 지자체, 수소기업, 유관기관 등
 - (정부)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(주재), 환경부, 국토부
 - (지자체) 서울, 인천, 경기, 전북, 충북, 부산, 경남 등
 - (기업) 수소 공급기업(기체, 액화) 및 수요기업(현대차, 버스연합회, 충전소 운영사업자)
 - (지원기관) 석유관리원(수소유통전담기관), 가스안전공사(수소안전전담기관)
한국수소연합(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)

□ 진행 일정(안)

시 간	세부 내용	비 고
10:00~10:05('05)	모두 발언	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
10:05~10:50('45)	○ 전국 수소차 및 충전소 보급 실적 및 계획	환경부
	○ 수소버스·충전소 보급 실적 및 계획	지자체 (7개)
	○ 수소버스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	국토부
	○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전망	산업부
	○ 수소 공급시설 및 충전소 수급상황 등	유통전담기관(한국석유관리원)
	○ 수소BI 홍보 및 활용계획	진흥전담기관(한국수소연합)
10:50~11:25('35)	업계 수급 현황 및 계획	수소공급 및 수요기업
11:25~11:30('05)	마무리 발언	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